

밝은 광주안과 'ISO 9001 국제인증' 취득

안과 의료서비스 質 한단계 높여

밝은광주안과가 최근 광주지역 최초로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IIC의 실사를 거쳐서 안과의료서비스 분야에서 'ISO 90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밝은광주안과는 잘 갖춰진 진료 시스템은 물론 책임 진료를 위해 수술 후 기록의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구현, 안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료진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 병원의 신뢰도도 크게 높였다.

김재봉 원장은 "환자가 자신과 관련된 병원 기록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진료상의 불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면서 "윤리와 책임의식 그리고 실력을 갖춘 진료 및 수술에 빗장을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건강관리협회 '여름철 건강 관리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 직장인들도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다.

피서 계획을 세우는 것 만큼 즐거운 일은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로 신체 피로가 깨질 경우 자칫 휴가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도움말로 여름철 건강 관리 요령을 알아본다.

휴가철에는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에어컨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다. 시원한 대신 지불해야 할 대가도 크다.

또한 휴가철에는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운전시 최대한 영덩이와 허리를 좌석 깊숙히 밀착시켜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등받이를 90도 가깝게 세우는 것이 좋은 자세이다.

허리가 아프면 가벼운 쿠션을 등 뒤에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팔은 쭈뻗은 자세보다 15도에서 30도 정도 굽히는 것 이 좋다.

운전시간이 길어지면 운전 도중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어깨와 가슴

장시간 운전 땐 틈틈이 스트레칭을

강한 햇빛 피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냉방방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냉방방은 평소 생활 환경의 온도에 의해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오는 문제이다. 생리적 균형이 깨지게 되면 두통, 스트레스, 코막힘, 식욕부진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외온도차가 5도 이상 지속되는 환경에 오래 머물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않으며, 냉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얇은 가디건이나 무릎닭요를 덮는 것이 좋다. 2주에 한번은 에어컨 청소를 해주며 2시간 냉방 후 10분의 환기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을 넓히고 허리를 뒤로 제껴 주는 스트레칭이 좋다. 배와 허리를 앞으로 쑥 내밀고 허리에 5초 동안 힘을 준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위쪽 뒷통수를 잡고 45도 오른 쪽 앞으로 잡아당겨 멱춤 동작을 8초 동안 유지한다. 반대 방향도 반복한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한다.

햇빛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와 SPF 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고 2~3시간에 마다 덧발라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강한 햇빛을 피해야하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암을 이기자!

<12> 방사선 치료

초음파 메스로 암세포 유전자 '싹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주요 3대 치료 방법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가 있으며 대개 두 가지 이상을 병용해 치료하고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자궁경부암이 감소하는 등 암 발생 양성이 점차 서서히 되고 있다. 과거 방사선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그 효과에 의문이 많았으나 최근 각종 첨단 방사선치료기가 비약적으로 개발돼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종양의 치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방사선치료의 작용=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방사선은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등이 치료용으로 쓰인다.

엑스선은 방사선치료기인 선형기속기에서 생성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사선이다. 감마선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자연붕괴로 발생하며 자궁경부암 등 자궁경내 근접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전자선은 피부암 등 깊이가 얕은 암의 치료에 이용된다. 방사선에 암세포가 과피되거나 방사선이 직접 암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상세포 역시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곧바로 회복된다. 방사선에 의한 종양의 치유과정은 암세포의 사멸속도에 따라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한 기간이 걸린다.

◇방사선치료의 종류=최근에 다양한 첨단의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삼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는 종양과 정상 장기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종양의 모양에 맞춰 방사선을 집중시킨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미세한 화소 단위로 방사선의 세기를 다양하게 조절해 종양의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종양과 인접한 중요 정상장기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이며 고급 사양의 선형기속기나 세기조절 전문치료기인 토토테라피 등으로 시행된다.

호흡연동방사선치료는 폐암, 간암 등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종양을 치료할 때 쓰인다. 영상유도방사선치료는 치료 중 종양 크기의 변화나 종양의 위치를 추적 관찰하면 서 치료한다.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선형기속기로 두경부암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종양에만 방사선 집중, 출혈·흉터없이 치료

폐암 등 수술 어렵거나 재발한 암에 효과적

방사선수술은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집중해 수술로 인한 출혈이나 흉터 없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선형기속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등을 이용해 1~3회 치료한다.

◇방사선치료의 과정=환자를 고정기구 등을 이용해 편안한 자세로 테이블에 위치시킨 후 치료계획용 영상을 얻는데 이를 모의치료(시뮬레이션)라고 한다. 이 영상을 방사선치료계획 시스템에 전송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다시 모의치료기에서 치료계획 영상을 재확인하고 환자의 몸이나 고정장치에 표시를 한다. 이후 치료실로 이동해 실제 치료가 시행된다. 일반적인 치료시간은 치료방법에 따라 약 10분~30분 정도 소요되며, 전체 치료기간은 종양의 특성이나 치료목적에 따라 통상 주 5회씩, 2~7주간 시행된다.

◇방사선치료의 대상=방사선 치료받는 환자의 약 70%가 완치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두경부암은 초기인 경우 방사선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에 비해 연하와 발생 등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폐암은 초기 병기에서 다른 이유로 수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방사선수술을 시행해 수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진행된 병기에서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다. 유방암과 뇌종양에서는 수술 후 보조적 목적으로 치료하여 재발을 억제한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식도암에서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시행해 식도를 보존하고 종양을 치유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선형기속기의 외부방사선치료와 방사성동위원소의 근접치료를 병용해 완치율을 높인다.

간암에서는 쟁전술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하여 최근 향상된 치료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해 항문을 보존할 수 있고 재발을 줄인다.

항문암이나 방광암에서도 각각 항문 또는 방광을 보존하면서 종양치유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율이 높은 종양 중의 하나이다. 일부 악성립프종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재발억제를 위해 방사선치료를

추가한다. 방사선치료 환자 중 나머지 30%의 환자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 폐쇄, 출혈, 척수신경 압박 등 급박한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 전신증상과 국소증상이 있다. 전신증상은 피로감, 식욕저하, 체중감소 등이다. 종양은 소모성 질환이라면서 대개 종양 자체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영양의 섭취가 더 힘들어 진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 수면을 취한다. 뇌종양 등 두부에 대한 치료부위에 일시적인 탈모 현상이 나타나지만 1~2개월 후 다시 자라난다. 인후두암 등 두경부암의 경우 치료시작 후 2~3주째에 인후두 염증, 입맛의 변화, 침 분비 감소, 식도 암의 경우 식도 염증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죽이거나 수프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방암의 치료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치료 후 대개 회복된다. 위암이나 담도암 등 상복부 치료 시에는 복부팽만감이나 식욕감퇴,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궁암이나 직장암 등 골반부 치료시에는 설사, 변비, 복통, 하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사선이 장내에 경미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개 한 달 이내 회복된다.

〈남태근 화순전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한림부모의 문방과 모부를 누가 관리하였습니까?

한림부모의 문방과 모부를 누가 관리하였습니까?
한림부모의 문방과 모부를 누가 관리하였습니까?
한림부모의 문방과 모부를 누가 관리하였습니까?

228-0108.010-5103-4004. 010-7178-0108



재혼 12년
최연수 1위

TLO

수많은 사람, 그러나 단 한사람

062-527-3366